

| KAFF 2011을 준비하며

설계자가 자재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The Architect must have a right of material choice



서용주 | Seo, Yong-joo, KIRA
대한건축사협회 사업위원회 위원장

약력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우건축 대표
- 서울메트로 디자인 자문위원
- 충남대건축과, 연세대도시공학과
- 관악, 노원, 디자인심의위원

우리는 마음이 허하다고 아무것으로나 채우며 살고 있지는 않나, 설계를 업으로 하는 우리 건축사들이 불황을 겪다보니 한 프로젝트를 수주하려면 꽤 긴 시간 동안 시달린다. 계약도 하기 전에 계획 설계는 끝나고 이사무소 저사무소 도면 두세 벌을 가지고 시작하여 막상일이 진행되면 진이 다 빠지고 설계비는 비교견적에 기본경비도 되지 못한다. 이렇게라도 건축사사무소를 유지하기 위해 손을 놓을 수 없는 소규모 사무소 건축사들의 현재 모습이다.

충분히 확보된 설계비에 연구도 하고, 동질의 건물 답사도 해보고 대안도 모색해보며, 모형도 만들고,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좋은 설계 작품이 창작 될 텐데, 현실은 꽤 거리가 멀다. 그런 중 일부는 설계를 너무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인가? 설계도서에 정확한 재료명을 세부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통칭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꽤나 많다. 또한 특기 시방을 작성하는 경우도 극히 드문 현실이다. 그만큼 설계자의 생각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적은 설계비에 감리비가 포함된 경우가 허다하니 제대로 건축 될 리가 없다. 최저의 조건에 아무것으로나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형태는 구현될지 몰라도 그 형태가 제대로 옷을 입었는지는 설계자도 헛갈리는 것이다.

설계를 하면서 그에 따른 자재 선택은 건축사가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도면에 명시해야 하며, 통칭으로 설계해서는 안 된다. 자재선택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을 꼴이 되는 것이다. 건축주·시공자는 설계자가 아니다. 설계자의 생각대로 그 재료, 그 색상, 그 물성 그대로 건축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만큼 건축사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설계에 임해야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습관적으로 사는 부분이 있듯이 설계도 그런 부분은 없는지 따져 볼 일이다.

제6회를 맞는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2011)은 최근의 화두인 친환경 건축에 걸맞는 “친환경 건축 재료의 발견”이란 주제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COEX Hall A에서 열린다. 행사와 더불어 “우수 건축 자재 추천제”를 기획하고 있다. 좋은 건축 자재를 많이 추천해 전국 건축사들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새롭게 생산되는 건축 자재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축된다면 보람 있는 일이다.

우수건축자재추천을 통해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KAFF Detail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전국 건축사에게 무료 공유할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 협회가 인증한 우수자재를 설계에 반영해 업체와 협회, 건축사들과의 유대강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KAFF 2011은 건축사협회의 비 예산 사업이다. 협회의 재정과 관계없지만, 잘못되면 협회가 주최인 만큼 협회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경향하우징페어가 성공한 컨벤션사업인 만큼 수요가 있는 컨벤션사업에 본 협회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집단인 만큼 차별화하고, 잘 육성한다면 협회의 별도 수익 법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전시사업이다.

KAFF 2011 이라는 큰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갖춰야 할 것이 많으나 최근 경기와 맞물려 어려움이 많다. 규모가 큰 업체들의 홍보비 절감으로 행사 참여도가 전무하다보니 대형부스 없이 소형부스 여러 개로 공간을 채운다는 게 힘이 부친다. 시간도 부족하고 업체마다 자체홍보를 계획하고 전시홍보예산은 없다는 애기뿐이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전국 건축사들의 십시일반(十匙一飯)의 마음을 구하고자 한다. ☐